

## 『제10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시상식 개최



한국화재보험협회는 6월 11일(금) 오전 11시 협회 1층 강당에서 불조심 어린이마당 수상자와 소방방재청, 손해보험회사 임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소방방재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국내 9개 손해보험회사가 후원한 『제10회 불조심 어린이마당』은 “안전의식은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전국의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상학교 선정은 참가 어린이 전원에게 화재 및 재난 안전에 관한 어린이용 학습교재인 “불조심 길라잡이”와 “우리는 안전어린이” 책자를 배포하여 한 달간 자율적으로 학습한 후, 두 차례에 걸친 평가시험을 통해 학급별 성적이 우수한 학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올해 대상을 차지한 경북의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5학년 6반에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는 등 총 17개교에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되었다.

한편, 올해부터는 참가 어린이들이 배운 지식을 실생활에서 적용해 보고 부모님도 함께 화재안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학부모 체험수기 및 제안”과 “우리 가정 화재안전map” 그리기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학부모 체험수기 및 제안”은 내용의 공감성, 창의성, 실천성, 표현력, 글의 구성도 등을 심사하였으며, 최우수상 및 우수상 각 1명씩 선정하였다.

한편, 1997년부터 시작된 『불조심 어린이마당』행사는 올해까지 전국 총 2,718개 학교 3,135개 학급에서 103,529명의 어린이가 참가하였으며, 올해에는 441개 학교 582개 학급에서 17,029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였다.

### 제10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수상학교 명단

번호	상장	지역	학교명	학년/반	지도교사	시 상	지도교사상	상 금
1	대 상	경북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5-6	김경휘	행정안전부장관상	소방방재청장상 (각 10만원)	100만원
2	최우수상	대구	대구동평초등학교	5-9	이한별	소방방재청장상 청장상		각 80만원
3		전북	남원도통초등학교	5-1	김민영			
4	우 수 상	충남	용남초등학교	5-2	문경인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상	각 60만원	
5		강원	홍천남산초등학교	5-7	조귀남			
6		경기	포천대봉초등학교	5-5	하정미			
7		경기	고리울초등학교	5-2	김정임			
8		전남	벌교초등학교	5-2	김현경			
9	불 조 심 어린이상	인천	인천선학초등학교	5-4	이정화	메리츠화재 대표이사상	각 40만원	
10		대전	금성초등학교	5-5	김순덕	한화손보 대표이사상		
11		경남	능동초등학교	5-3	송영구	롯데손보 대표이사상		
12		광주	불로초등학교	5-3	이영배	그린손보 대표이사상		
13		부산	동래초등학교	5-3	강서훈	흥국화재 대표이사상		
14		울산	옥현초등학교	5-1	이금희	삼성화재 대표이사상		
15		충북	산남초등학교	5-3	김혜진	현대해상 대표이사상		
16		제주	한림초등학교	5-4	김지희	LIG손보 대표이사상		
17		서울	서울정운초등학교	5-7	정승혜	동부화재 대표이사상		
18	학부모 체험수기 최우수상	경기	고리울초등학교	-	최은미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상	30만원	
19	학부모 체험수기 우수상	광주	불로초등학교	-	박경희		20만원	
<b>17개 학급, 학부모 2명</b>								<b>1,000만원</b>



#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방안 공청회

일시 : 2010년 7월 16(금) 15:00~16:30

주관 : 한국화재보험협회



#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방안 공청회 개최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지난 7월 16일 오후 2시 30분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강당에서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10년 3월 22일 일부 개정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및 공유건물이 특수건물에 포함됨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기에 앞서 각계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공청회는 전주대학교 양희산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성균관대학교 정홍주 교수, △한국사이버대학교 박재성 교수,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 △한국목욕업중앙회 김희선 회장, △안실련 부대표 정재희 교수(서울산업대학교)의 주제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양희산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대상에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노래방·목욕탕·영화관·PC방·게임제공업·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공유건물 및 도시철도 역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추가되는 건물의 규모는 화재빈도가 높은 일정 면적 이상을 대상으로, 현행 의무가입대상 면적규모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건물주의 보험료 부담을 감안하여 설정했는데, 새로이 포함되는 건물은 5,089개로, 그 중 공유건물의 90%이상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35%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건물 소유주가 새롭게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지게 되는 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금융위원회에 건의하여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